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발간등록번호 31-9700484-001731-14
ISSN 2672-0280

NABO FOCUS
2019. 9. 18. 제2호

2020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윤여문 분석관

재정총량 개요

● **정부는 총지출 기준 513.5조원의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2019년 9월 3일 국회 제출**

- 재정규모
  - 총수입: 482.0조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2% 증가하여 2009년 이후 최소 증가율. 특히 국세수입은 지방소비세율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8조원(0.9%) 감소
  - 총지출: 513.5조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9.3% 증가하여, 2009년 13.4%, 2019년 9.7%에 이어 최근 15년간 3번째로 높은 증가율 시현
- 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1]: 31.5조원 적자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2015년 이후 5년 만의 적자
  - 관리재정수지[2]: 72.1조원 적자(GDP 대비 3.6%)로 역대 최대규모 시현
- 국가채무[3]: 805.5조원(GDP 대비 39.8%)으로 전년 대비 8.7% 증가

[표 1] **2020년도 예산안 재정총량 요약**

(단위: 조원, %, %p)

구 분		2019년 본예산(A)	2019년 추경	2020년 예산안(B)	증 감(B-A)	증감률
재정 규모	총수입	476.1	476.4	482.0	5.9	1.2
	국세수입	294.8	294.8	292.0	△2.8	△0.9
	총지출	469.6	475.4	513.5	43.9	9.3
재정 수지	통합재정수지	6.5	1.0	△31.5	△32.5	-
	관리재정수지	△37.6	△42.3	△72.1	△34.5	-
	(GDP 대비 비율)	(△1.9)	(△2.2)	(△3.6)	(△1.7)	-
국가채무(D1)		740.8	731.5	805.5	64.7	8.7
(GDP 대비 비율)		(37.1)	(37.2)	(39.8)	(2.7)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년도 예산안」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 이 원고는 재정지표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그 밖에 2020년도 예산안의 중점 투자분야 등의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동향&이슈」(통권 제10호) 참조

1) 통합재정수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재정수지

2)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에서 인구구조상 대규모 흑자를 시현할 가능성이 높은 4대 사회보험성기금수지(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을 제외한 재정수지

3) 국가채무(D1): 현금주의 기준으로 중앙·지방정부의 금전채무를 합산한 지표

재정지출 구성 변동

● 의무지출의 확대 경향은 지속될 전망

- 의무지출: 지출의무 및 규모가 법령에 따라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
- 의무지출 비중 변동
  - 2020년 예산안의 의무지출 비중은 49.8%로서 표면적으로는 전년도 51.0% 대비 하향조정
  - 다만, 이는 국세수입 감소에 따라 그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출이 감소하면서 의무지출 세부항목 중 '지방이전재원'의 비중이 급감하기 때문
    → '복지분야법정지출' 비중은 2019년 22.7%에서 2023년 24.9%로 지속 증가 계획
    ※ 복지분야 법정지출의 2019~2023년 연평균 증가율은 8.9%로 총지출 증가율 6.5%를 크게 상회

[표 2] 의무지출 변동내역

(단위: 조원, %)

구분 (총지출 대비 비중)	2017 본예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2020 예산안	2021 계획	2022 계획	2023 계획	연평균 증가율 ('19~'23)
의무지출(A)	197.0 (49.2)	217.0 (50.6)	239.3 (51.0)	255.6 (49.8)	270.7 (49.5)	289.5 (50.3)	302.8 (50.1)	6.1
지방이전재원	87.6 (21.9)	99.4 (23.2)	111.5 (23.7)	111.6 (21.7)	116.3 (21.3)	121.9 (21.2)	126.2 (20.9)	3.1
복지분야법정지출	87.2 (21.8)	95.7 (22.3)	106.7 (22.7)	120.2 (23.4)	130.5 (23.9)	140.7 (24.5)	150.2 (24.9)	8.9
이자지출	16.1 (4.0)	16.0 (3.7)	16.0 (3.4)	16.8 (3.3)	18.1 (3.3)	18.8 (3.3)	20.2 (3.3)	6.0
기타	6.0 (1.5)	5.8 (1.4)	5.1 (1.1)	7.0 (1.4)	5.9 (1.1)	8.1 (1.4)	6.2 (1.0)	5.2
재량지출(B)	203.5 (50.8)	211.9 (49.4)	230.3 (49.0)	257.8 (50.2)	276.1 (50.5)	285.8 (49.7)	301.3 (49.9)	6.9
총지출(A+B)	400.5	428.8	469.6	513.5	546.8	575.3	604.0	6.5

주: 1. 지방이전재원: 지방교부세·교부금 등
2. 복지분야법정지출: 국민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공적연금, 보훈보상·수당 관련 지출 등
3. 이자지출: 국채 이자지출 등
4. 기타: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유엔PKO 예산분담금 등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중기 재정운용목표 변동

● 중기 재정운용목표의 관대화 현상 지속

- 중기 재정운용목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운용의 기준이 되는 지표
  → 정부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 및 'GDP 대비 국가채무(D1) 비율' 사용
- 중기 재정운용목표 변동 현황
  - 2019~2023년 중기 재정운용목표: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GDP 대비 △3% 중반,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40%대 중반으로 제시
    ※ 2023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3.9%, 국가채무비율은 46.4%를 계획
  - 중기 재정운용목표 변동 경과

    관리재정수지 비율: 2017년 △2% 내외 → 2018년 △3% → 2019년 △3% 중반

    국가채무 비율: 2013년 30%대 중반 → 2015년 40%대 → 2019년 40%대 중반

[표 3] **각 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중기 재정운용 목표**

구분	관리재정수지/GDP 비율		국가채무/GDP 비율	
	목표	표현	목표	표현
2011~2015	2013년 균형	목표	20%대 후반	관리
2012~2016	균형재정 기조 유지	관리	30% 이내	전망
2013~2017	2017년 균형 수준	관리	30%대 중반	관리
2014~2018	△1% 수준	전망	30%대 중반	관리
2015~2019	점진적으로 개선	관리	40%대 초반	관리
2016~2020	단계적으로 회복	관리	40%대 초반	관리
2017~2021	△2% 내외	관리	40%대 초반	관리
2018~2022	△3% 이내	관리	40%대 초반	관리
2019~2023	△3% 중반	관리	40%대 중반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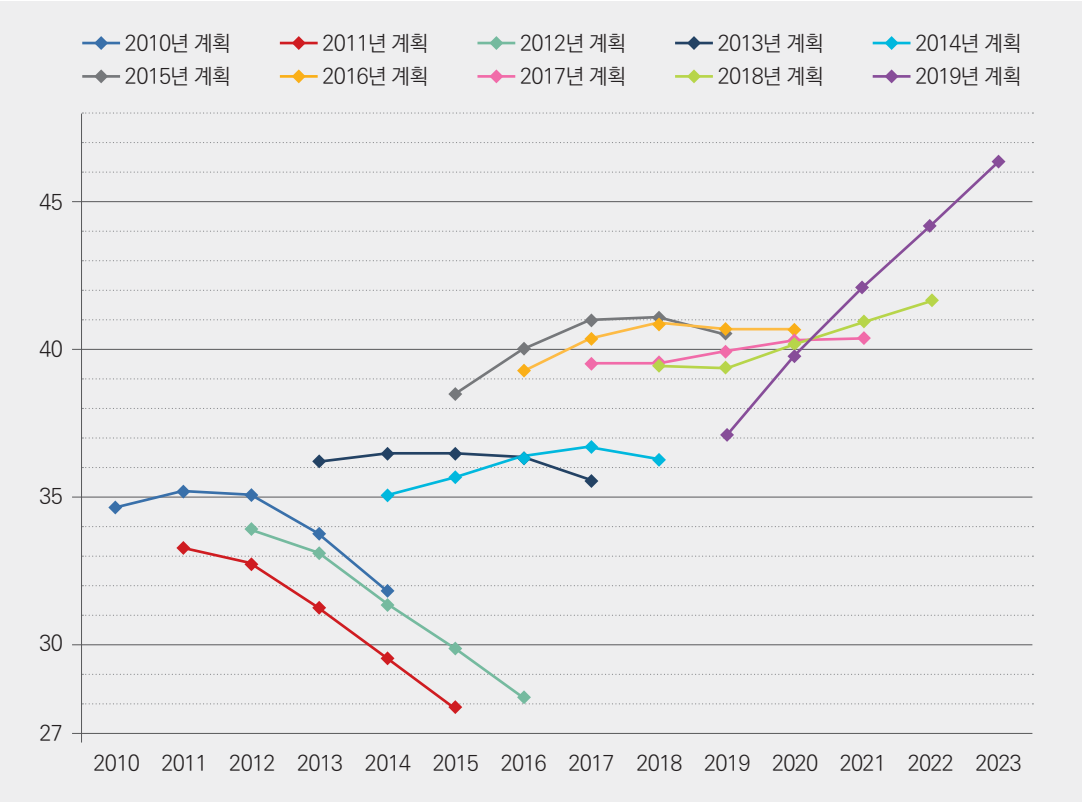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 국가채무 비율 연도별 관리계획의 경향성 변화

- 2016년 이전: 계획기간 초반에는 국가채무 비율을 확대시키더라도 후반에는 다시 감축시키는 방향으로 계획 수립
- 2017년 이후: 계획기간 후반까지 국가채무비율을 계속 확대시켜 재정건전성 관리보다는 계획의 현실성 확보 중시. 특히, 2019년 계획은 국가채무비율 증가속도를 급격히 확대시켜 적극적인 재정확대 의지 표명

그림 1 **국가채무 비율의 연도별 관리방식 변동**

(단위: GDP 대비 %)



주: 2018년 계획까지는 구계열GDP 기준, 2019년 계획은 신계열GDP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12대 분야 변동

● 12대 분야 재원배분 변동

- 주요 재원배분 증가분야
  - 증감규모 기준: 보건·복지·노동(20.6조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5.2조원), 일반·지방행정(3.9조원) 순
  - 증감률 기준: 산업·중소기업·에너지(27.5%), 환경(19.3%), R&D(17.3%) 순
- 주요 특징
  - 산업분야 증가규모 확대: 경기 하방기조, 일본 수출규제 등의 영향
    ※ 전년대비 증감률: 2018년 본예산 1.5% → 2019년 본예산 15.1% → 2020년 예산안 27.5%
  - SOC 분야 감축 계획 전환: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이후 매년 중기 재원배분 감축 계획 →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노후 SOC 개량 및 생활 SOC 확충을 위하여 9년 만에 예산규모를 증가하는 방향으로 계획

[표 4] 12대 분야 재원배분 변동

(단위: 조원, %)

구 분	2019년 본예산(A)	2020년 예산안(B)	증감(B-A)	증감률
1. 보건·복지·노동	161.0	181.6	20.6	(12.8)
2. 교육	70.6	72.5	1.8	(2.6)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외시	15.4	17.0	1.6	(10.4)
3. 문화·체육·관광	7.2	8.0	0.7	(9.9)
4. 환경	7.4	8.8	1.4	(19.3)
5. R&D	20.5	24.1	3.6	(17.3)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8.8	23.9	5.2	(27.5)
7. SOC	19.8	22.3	2.6	(12.9)
8. 농림·수산·식품	20.0	21.0	0.9	(4.7)
9. 국방	46.7	50.2	3.5	(7.4)
10. 외교·통일	5.1	5.5	0.5	(9.2)
11. 공공질서·안전	20.1	20.9	0.8	(4.0)
12. 일반·지방행정	76.6	80.5	3.9	(5.1)
※ 지방교부세 제외시	24.1	28.2	4.1	(17.0)

예산안 분석 기본 방향

● 재정 지출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 동시 고려

- 2020년도 예산안은 국내·외 경제성장률 저하 등 경기 하강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례적인 수준으로 확장 편성
- 경기대응 효과 발현을 위한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한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